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5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25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5. 25.(화)	담당부서	다자통상협력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930)	담 당 자	최정연 사무관(044-203-5933)

코로나19 백신 등 지재권 유예 관련 민관 간담회 개최

- SK바이오, 삼성바이오 등 업계 참석 하에 세계무역기구(WTO) 동향 공유 및 영향 점검 -

-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여 지속적 민관 소통 다짐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 문승욱)는 **코로나19 대응**을 위하여 **백신·치료제 등**에 대한 **지재권 일시 유예 방안**이 WTO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, 관계부처와 함께 **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영향을 점검**하기 위해 **'21.5.25(화)** 「**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**」를 개최함.

< 간담회 개요>

◇ **일시·장소** : '21.5.25(화) 14:00~15:30 /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

◇ **참석** : **(주재)**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, **(정부)** 보건복지부, 특허청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**(협회)**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, **(업계)** SK바이오사이언스,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, 셀리드, 큐라티스, HK이노엔, 한미약품, 에스티팜, 녹십자, 종근당 등

◇ **내용** :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협정 유예 논의동향 전파 및 업계 의견 수렴

○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·치료제·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하여 **WTO 지식재산권협정(TRIPS*)을 일시 유예**하는 방안을 두고 **선진국(반대)과 개도국(지지) 간 이견**이 계속되어온 가운데,

* Agreement on Trade-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(1995.1.1. 발효)

- 지난 **'21.5.5(수) 미국**이 무역대표부(USTR) 캐서린 타이 대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**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변경**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.

- 다만 TRIPS 유예를 적극 주장해온 **인도·남아공 등 개도국 진영**은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·진단기기 등 **의료품목 전반**을 대상으로 특허권·저작권·산업디자인·영업비밀 등 **광범위한 지재권 유예**를 주장하는 상황임.

□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▲국내 백신·치료제 등의 **생산 확대**, ▲국산 백신·치료제 등의 **개발 영향** 등과 관련하여 TRIPS 유예의 **실효성, 한계 및 예상영향**을 **다양한 측면에서 논의**하였음.

○ 특히 업계는 TRIPS 유예의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**▲정확한 WTO 동향을 계속 공유**하고, TRIPs 유예 논의와 별도로 **▲국산 백신·치료제 개발, ▲백신 원료확보, ▲라이선싱 협력 강화** 등의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음.

□ **간담회를 주재**한 **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**은 "이번 **한미 정상회담** 계기에 **우리나라의 우수 제조 역량**을 활용하여 **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전**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,

○ 향후 WTO 등 **전세계적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양·다자 논의**에 적극 참여하여 **우리 국익이 극대화**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"고 밝힘.

□ 이후에도 정부는 WTO 등 관련 **국제동향을 면밀히 점검**하면서 유관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**지속적 소통을 통한 대응**을 계속해나갈 예정임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정연 사무관(☎044-203-59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